피말렸던 자영업자 '숨통'…노래방 등 "왜 우리만 금지" 반발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반응 보니

실내체육시설 등 7개 업종 "생계 막막했는데 다시 문 열게 돼 다행"
100평 강의실 8명 수업·DVD방 룸 하나에 1명 제한 "하나마나"
공연장 50명 미만 입장에 "연기자 빼면 관람객 입장 불가" 불만도

광주시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다소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하면서 반겼고 시민들 일상도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안하느니만 못한 조치'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14일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점을 감안, 기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중점관리대상시설 범위를 완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광주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에서 '2단계'로 완화하고 7개 업종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를 '집합제한' 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7개 업종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놀이공원 ▲공연장 ▲민간운영 실내 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등이다.

이들 7개 분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랐는데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드러냈다. 도심 곳곳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문을 닫았다가 모처럼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분주한 자영업자들 모습이 눈에 띄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일제히 반겼다. 이날 오후 1시께 광주시 통보를 받고 문을 연 상무지구 한 헬스클럽 관계자는 "연장조치가 계획보다 당겨져 다행"이라며 "오랜만에 문을 열었으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지역 볼링장 대표는 "집합 금지로 문을 열지 못했어도 날마다 출근해 준비해 왔다"면서 "12시가 되자마자 바로 문을 열었다. 아직 손님은 없지만 문을 연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인다"며 반겼다.

동구지역 당구장 사장은 "한달 월세만 500인데 문을 닫고 있어 그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다"면서 "문을 열어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볼멘 소리도 적지 않다. 완화한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져 '안하느니만 못한 조치' 라는 비판도 터져나온다. 형평성을 들어 "왜 우리만 집합 금지조치가 그대로냐"는 업주들 반발도 속출하고 있다.

동구지역 고시학원측은 강의실당 10인 미만으로만 운영토록 한 완화 조치가 현실성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시학원 관계자는 "330㎡가 넘는 강의실에 10명 미만으로만 수업을 받도록 하면 강사를 빼면 8명만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데 강의실 당 100명이 넘는 수강생 중 누굴 빼고 누굴 넣겠냐"고 반문했다. 북구지역 한 대형 고시학원은 기존 집합금지 명령 기간 중 버틸 방법이 없다며 폐업했고 함께 운영하던 독서실도 문을 닫았다.

멀티방·DVD방 업주들도 "이런 완화 조치로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문을 어떻게 열란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구 중흥동 DVD 업주는 "4㎡당 한 명씩 받아 영업을 하라는데, 방 하나에 한 명꼴"이라며 "연인들이 고객 대부분인데 따로따로 들어가라고 하면 말을 듣겠냐"고 황당해했다.

공연 업체 등도 비슷하다. 광주아트홀 관계자는 "4㎡당 한명씩 50명 미만으로 공연을 진행하라는데, 배우·스탭 등을 빼면 관객은 10명도 못 들어오는 구조"라며 "추석 연휴도 있으니 이번달 말까지는 문을 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14일 광주시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에 따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태권도 도장이 문을 열고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완화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업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 집단운동 (GX·Group Exercise) ▲대학 운영 실내체육시설·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방문판매 등 판촉홍보관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바둑) 등이다.

당장, 광주지역 1300명에 이르는 노래연습장 운영자들은 "4㎡당 한 명씩 들어가면 되는데, 왜 노래연습장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했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측도 "노래연습장측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6주간 문을 닫은 광주지역 800개 유흥주점은 이마저도 못 받는다, 우리는 시민 아니냐"고 따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청남대 전두환 동상 즉각 철거하라" 5월단체, 충북도청앞서 촉구

5월 단체들이 전두환이 대통령 재직 시절 만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충북 청주시)에서 전두환·노태우 동상에 대한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등은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이시종 도지사는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거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시종 지사가 지난 5월 13일 '2개월의 시간을 달라'며 철거를 약속했지만, 충북도의회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있다"면서 "학살 반란 독재로 사형 무기징역에 처했던 자들을 미화하는 사업은 위법이며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학살 반란자의 동상은 관광용 기념물로 되서도 안된다"면서 "늦어도 다음 달 30일까지 동상을 철거를 완료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옛 청남대에는 ▲전두환 대통령길 산책로(1.5㎞) ▲전씨 동상과 각종 안내판 ▲대통령 기념관 등이 있고 각종 안내판에는 전씨의 행적을 찬양·기념하는 내용과 사진 등이 기록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관심 끌려고 수재민 비하했다니…

광주경찰, '홍어'·'오뎅탕' 등 조롱 댓글 2명 입건

"명예훼손 적용 강력 처벌을"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고 생활터전을 빼앗긴 피해자들을 '홍어', '오뎅탕' 등으로 비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20대와 40대 남성이 경찰에 밝힌 이유다.

기본적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판 행위를 저지른 게 고작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를 홍어, 오뎅 등에 비유한 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은 형법상 모욕죄에 견줘 처벌 수위가 높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일베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중호우 피해자와 유가족 등을 조롱·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죄 등)로 작성자 A(20)씨와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전남지역에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은 어린 희생자를 '홍어', '오뎅탕' 등으로 비하했고 납골당 침수피해 유가족들을 '미숫가루 먹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납골당 침수피해와 관련, '뼈 해장국 맛집' 등의 글을 올리고 비하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다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범행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망상 빠져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0년

권고형량보다 낮춰…광주지법 "장기간 형벌 보다 치료 더 시급"

자신이 앓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 집행 종류 이후 1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했고 주거지를 제한해 해당 기간에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3개월에 한번씩 의료기관 상담·검진, 6개월마다 한 차례 정상적 경제활동을 입증할 자료 제출 등 강력한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또 부착명령에 따른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4)에게 자전거 바퀴를 잇는 부품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전부터 앓아온 편집성 정신분열병, 이른바 조현병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형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바람에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도 나눠주지 않아 인생을 망쳤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다른 가족들이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줬던 친아버지를 살해한 범행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류 또는 치료감호 종료 뒤 적어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수반하는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 치료가 더 시급하다"면서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수용키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병과하고 사회 복귀 이후에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으로 재범 위험성을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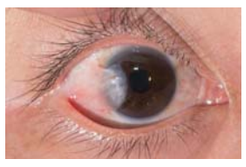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